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 만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인의 일상을 통한 소외감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김 혜 진

인 준 서

김혜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7년 석사 청구 전시에서 ‘타인과의 관계’ 라는 주제로 발표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조형성을 연구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를 뉴 미디어 또는 디지털 시대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디지털, 사이버,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에 의해 지배 받는다.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구하거나 물건을 산다. 길을 걸으면서 도심 곳곳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뉴스와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이다. 물건을 고를 때에는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카드하나로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고, 언제 어디든 갈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첨단과학 기술이 이룩한 문명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하고 풍요롭게 했지만, 역설적으로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간소의 현상의 심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농촌이나 공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협동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스템이 이제는 자동화된 기계를 관리하는 몇몇의 사람들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놀이문화 또한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의 발달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마저 혼란스러워졌고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은 더더욱 단절되어가고 있다. 원본이 사라진 사회 속에서 현실에서의 교류마저 혼돈되는 상황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실제 만남 보다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해결한다.

본인 또한 현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으로서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을 반영하여 삭막한 일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작업의 소재로 삼고, 본인 스스

로의 존재감을 중심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조형화하고자 하였다.

작업을 시작함에 있어 일상에서 현대인들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로 횡단보도나, 카페를 소재로 택하였다. 횡단보도는 일제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지만 길을 건너기 위해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개인화되고 타인에게 무관심해진 현대 사회인들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 이미지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를 중첩시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또 다른 소재인 카페라는 공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만남이 이루어질 뿐 다른 이와는 소통은 단절된 곳이다. 각자의 일에 바빠 주위를 둘러 볼 여유조차 없는 그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공간들을 사진에 담아 그것을 재구성하고 때로는 작품 속에 거울을 부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이가 비취짐으로써 작품과 관객의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표현해 보았다.

예술은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또 예술가는 사회적으로 제약된 현실 과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결과를 모색하며 그 과제를 풀어가면서 현재 상태의 자기를 이룬다. 본인이 살고 있는 현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하며,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알게 모르게 서로의 삶에 존재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표현했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조형논리로 연구 분석한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내용적 측면	3
1) 인간관계의 풍경	3
2) 사회적 사건을 통한 주제의 설정 동기	6
2. 조형적 측면	9
1) 사진을 통한 표현	9
2) 색의 의미	11
3) 거울의 특성	13
3. 작품분석	16
III. 결론	32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우리는 디지털 시대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에 살면서 진보된 과학문명의 이점을 여러모로 누리지만 그에 못지않은 매스미디어의 지배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메일을 보낼 수도 있으며, 길을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이동순간에도 PDP가 있으면 사무업무를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무엇이건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정보든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친구도 만들어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온라인상의 놀이문화를 즐기고, 채팅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첨단과학 기술이 이룩한 문명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하고 풍요롭게 했지만, 인간소외 현상의 심화를 가져왔다. 현실이 아닌 온라인상의 만남으로 유지되는 인간관계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의 발달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마저 혼란스러워졌다. 실제 만남 보다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해결함으로써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은 더욱더 단절되어가며 인간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본인 또한 현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으로서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을 반영하여 소통이 단절되어가는 일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작업의 소재로 삼고, 본인 스스로의 존재감을 중심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조형화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전형적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타인과의 소통이 단절된 관계 부재'를 내용으로 한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주제와 표현의 조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 본인의 삶 주변 사람들의 일상 속 모습을 관찰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된 주제의식을 통하여 현대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성에 관한 모습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 사회적으로 이슈를 일으킨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본인작품의 주제 형성의 동기와 내용을 서술하였다.

조형적 측면으로는 이러한 주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본인의 작품에 도입된 사진 이미지 활용의 의도와 작품 속에 드러나는 색채의 상징적 의미를 연구하고, 거울을 사용함으로써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던 작품의 조형화 과정을 연구 분석하였고 결론은 본인의 작품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내용적 측면

1) 인간관계의 풍경

일상, ‘日 날일, 常 항상 상’. 늘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하루란 뜻으로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반복된 삶을 의미한다. 속담에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반복되는 일상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건 없이 규칙적으로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현대 디지털 문명의 발달은 일상생활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개인들 사이의 고립과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심화시킴으로 인간의 정서는 차츰 메말라가고 공허해지고 있다. 각박한 생활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남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버린 우리 사회는 지금 서로를 상대평가의 비교대상으로 보게 한다. 이처럼 끊임없이 평가받는 사회 속에서 타인과 단절되고 전투태세로 경쟁해가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을 그리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관계들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이기주의로 변하며, 주변에 무관심하게 되고, 혹은 체념하게 되어 습관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며 권태감을 느끼게 된다. 본인은 현대인들의 일상으로부터 관찰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어릴 적부터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고, 또 의식하는 습관을 가져왔다.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들의 각각 다른 사연을 만들어 상상하는 것을

즐겼다.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 공간 안에 날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본인만의 생각들로 사람들을 보며 관찰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지도 않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습과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상식과 인습 속에서 안정감을 얻는다.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보통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은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당연한 세계이고 친숙한 세계이다. 소외가 일상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인 것이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이러한 대중들의 소외 형태를 인간의 “비본래성”(Uneigentlichkeit)이라고 부른다. 일상적인 삶의 세계는, 이처럼 대중들의 ‘비본래성’이 은폐되어 있는 공간이다. 일상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만은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외라는 말조차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바로 이러한 무의식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일상적 삶이다.¹⁾ 습관이 되어버린 일상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본인들의 자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만든다. 거기서 ‘나’란 존재감은 공중에 떠버린 듯 상실감을 갖게 된다.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는 이런 인간의 비본래성을 잘 표현한 작가라 할 수 있다. 작품 「밤샘하는 사람들」 【도판 1】을 보면 4명의 인물들이 어느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고, 남녀는 같이 앉아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며, 종업원은 자신의 일에 분주하며, 혼자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은 쓸쓸함을 보여준다. “…… 아마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대도시에서의 고독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한 에드워드 호

1) 최중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p.200

퍼의 말은 자신도 역시 사회에서 느껴지는 소외와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본인도 이러한 무관심, 소외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타인들이 본인의 삶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일상의 모습 중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며 현대인들 사이의 관계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횡단보도, 길, 카페를 소재로 삼았다. 횡단보도는 일제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지만 길을 건너기 위해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개인화되고 타인에게 무관심해진 현대 사회인들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 이미지 속에 또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중첩시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또 다른 소재인 카페라는 공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만남이 이루어질 뿐 다른 이와 소통이 단절된 곳이다. 각자의 일에 바빠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는 그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공간인 것이다.

횡단보도 【작품 1, 2, 3】 과 길 【작품 4, 5】 에는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타인을 길가에 지나치는 가로수처럼 생각하며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포착해서 사람들의 모습에 다시 사람들을 중첩시킴으로써 타인과의 관계 속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하였다. 또, 【작품 6, 7, 8, 9】 는 카페라는 공간에 많은 이들이 모이지만 그 속에서 각자의 일에만 집중하여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는 이들과 둘 이상이 모인 곳에서는 서로의 대화로 인하여 주위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혼자선 혼자여서, 둘은 또 둘만의 시간을 보내느라 주위를 둘러보지 못한다.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주위로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하며 그 공

간에서 느끼고 떠오르는 감정들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2) 사회적 사건을 통한 주제의 설정 동기

본인은 대학교 시절부터 유학(遊學)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 처음에는 가족 없이 혼자 지낸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가족의 빈자리를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 채워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서히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작업의 주제로 다루게 되었다.

어느 날과 다름없던 어느 날, 사소한 일을 계기로 우울한 기분이 되어 사람들이 많은 거리로 나왔던 적이 있다. 순간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왜 나만 기분이 나쁘고, 나만 우울한 걸까?’ 라는 생각에 미치면서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단 사실을, 우울하단 사실이 더욱 깊게 사무친 순간, 그 찰나에 ‘만약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없어져도 이런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표정 하나하나와 행동들을 보고, 말소리들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통해 그곳에 내가 있다는 존재감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내 주위에 존재하는 타인들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나 자신은 남을 통해 투영된다는 사실과 그렇기에 타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은 나의 삶과 ‘연결’ 되어 있다. 내가 ‘삶의 연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물이나 사람들은 나에게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친숙한 것이다. 비록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존재는 나의 삶 속에 일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 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글자 그대로 ‘타인’ 또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는 나와 일정한 연관 속에 있다.²⁾ 이렇게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연결

되어 있고 그리하여 서로가 존재한다. 우리는 자아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 환경,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 가는 것을 알고 있다.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영문과 4학년이었던 한국계 조승희라는 학생이 총을 들고 강의실에 난입,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무차별로 총격을 가해 32명의 사상자와 여러 부상자를 만들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사회 속에서 소외된 한 사람이 일으킨 비극적 결과라 볼 수 있다. 내성적이며 사회성의 결여로 인한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폭력적인게임으로 해소하며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실제 세계에서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총으로 쏘버리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건 후 버지니아공대는 희생자들의 추모석과 그에게 관심을 주지 못한 자기반성과 원망하지 않는다는 글귀가 쓰여 있는 조승희의 추모석을 교정에 만들었다. 이것은 이번 사건이 그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있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 크게는 사회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써 우리는 서로 관심 갖고 관심을 줘야하는 존재라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 포탈사이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캠퍼스몬(WWW.campusmon.com)에서 이 같은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할 과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소외된 사람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개선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2.1%로 가장 많이 나왔다. 사람들 스스로가 점점 더 개인화되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서로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각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본인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문제의식을 확인하게 해 준 큰 계기가 되었다.

현대사회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물질문명을 발전시켜온 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소외와 외로움, 무관심, 개인화 등으로 나타나며 주체성의 상실로 비롯된

2) 최중욱, 앞의 책, 지와 사랑, 2000, p.173.

비인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서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게 되고,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지 않아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뤄지게 되었다. 따라서 직접 마주치고, 눈을 보며 대화 하고 소통하는 인간미를 상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길을 나가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당연한 듯 되어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존재감을 주는 연관성이 있는 관계가 아닌 당연히 거기 있어야하는 어떤 사물이 되어 버리는 무관심속에 살고 있다.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는 “무엇이건 나에 관하여 어떤 진실을 얻으려면 나는 타자를 거쳐야만 한다. 타자는 나의 존재에 필수불가결하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³⁾ 이는 내가 타인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 내가 여기 있다고 느끼는 것은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 나의-바라보여진-존재에 주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타인의 존재를 나의 존재근거로 보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본인은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사회적 사건의 하나를 예로 들어 사람과의 관계 속에 관심이 주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사르트르의 존재론을 빌어 나의 존재함은 타인으로 인한 인식이란 의미를 상기시키려 한다.

3) 변광배, 『장 폴 사르트르 시선과 타자』, 살림출판사, 2004, p.44

2. 조형적 측면

1) 사진을 통한 표현

1840년 카메라의 발명으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거나, 기록을 목적으로 하던 주문생산 중심의 회화가 위기를 맞이하며 위축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화가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회화에 수용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하기보다 자기표현을 중심으로 자신의 독창적 기법을 연구하는 새로운 창작의 도구로 삼았다. 그에 이어 사진이 주는 대량의 이미지, 복제, 사실적 기록 등의 특성들을 작업에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카메라가 널리 보급되면서 대중들 또한 사진을 쉽게 접하게 되어 사진을 이용한 작업이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팝아트는 사진의 특성을 살려 대중문화 속에 잘 스며든 미술로 현대사회의 특징인 소비문화, 물질문명의 발전된 이미지를 대중화시켰다. 또 형상의 복제, 표현기법의 보편화 등으로 회화의 개인적인 것에서 대중적인 것으로 개방시킨 회화의 한 양식으로 사진과 회화의 접목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은 무한복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본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아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며, 복제는 본래의 것에서 똑같은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진의 특성을 활용한 이미지는 대량생산, 대중성, 복제 등을 나타낸다. 그 예로 리처드 해밀턴의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의 가정을 그토록 다르게 두드러지게 하는가?」 【도판 2】 과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도판 3】 를 보면 그 특징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카메라의 사용이 그림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런 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⁴⁾라는 필름이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상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시간단축이 되는 카메라로 발전되어 대중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카메라는 위의 특징 외에도 촬영한 당시 곧바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이점이 있다. 또 촬영한 이미지는 필름카메라와는 달리 별도의 현상작업이 필요 없이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 덕분에 미술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던 카메라의 역할은 보다 빠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인도 이러한 디지털카메라가 가지는 편집의 용이함과 다양한 인화의 가능성, 그리고 손쉽게 일상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특징에 매료되어 작업에 도입시켰다. 이런 디지털카메라의 특성들은 빠른 것을 원하고 편한 것을 누리 기 위한 현대인들의 습성과 비슷한 면을 보여준다.

본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거리의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낸다. 그러나 본인은 평범하고, 단조롭고, 일상적으로 보이는 그 풍경 속에서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힘들지만 역동적인 발걸음을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지각 심리학자인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04~2007)은 회화와는 달리 사진은 작가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조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진을 ‘읽는’ 작업이 개입되어 결과적으로 사진은 물리적 리얼리티와 인간의 창조적인 마음 사이의 일종의 만남(encounter)이 된다⁵⁾고 하였

4) 사진을 찍으면 화면을 카메라에 내장된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카메라와 스캐너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이다. PC의 화상 데이터와 호환성이 높아 편집 및 수정이 간편하다.

1975년 코닥에서 최초의 디지털카메라 원형을 만들어냈다.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라는 용어도 정립돼 있지 않은 시절이었기에 그때는 ‘전자스틸카메라(Electronic Still Camera)’ 혹은 ‘무필름카메라(Filmless Camera)’라고 부르기도 했다. 75년 개발된 디지털 카메라는 같은 해 1월 첫 촬영이 이뤄졌으며 76년 한해 동안 코닥 사내에서 여러 차례의 시연이 이뤄졌고 77년 기술 보고서가 발행됐고 같은 해 5월에 특허가 출원돼 78년 1월에 특허를 받았다.

5) 강태희, 『현대미술의 또 다른 지평』, 시공사, 2000, p.131

다. 이렇듯 보는 이에 따라 본다는 것은 달라지며 그것을 사진으로 찍는다는 것은 자신의 풍경이 되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만 또 다른 의미로 사람의 감정 또한 보여 지는 것이다.

본인은 일상 풍경 속에서 주제에 적절하다 생각되는 풍경을 사진으로 포착하였다. 그 이미지를 본인의 주제의식이 잘 전달되도록 다시 편집하고 재구성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한 화면에 표현하였다. 이렇게 사람들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재구성하여 표현한 것은 한 공간 속에 모인 인파 속에 다양한 관계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우리는 당연한 듯하여 잊고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과 부딪히며 생활하기에 자아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 6, 7】에서는 사진 그대로의 리얼리티를 살리고자 사진의 실사를 그대로 거울에 부착하였다. 그것은 실사 속 거울에 비친 현장을 재현함으로써 한번쯤 가보았을 법한 공간의 동질성을 표현하고자 함이었다. 또 이 작품에서 보이는 사진의 이미지들의 중첩된 표현방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갈등과 소외, 무관심 등이 사람들 서로간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모습과 시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 또한 소외나 무관심 속에 있을 수도, 타인에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본인의 작품에 활용되고 있는 사진은 회화적 요소와 접목되거나 일상의 순간을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실험적인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변형시키거나 작업에 더욱 극적인 효과를 끌어들이는 등, 작품의 다양한 실험성을 모색할 수 있는 조형적 방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색의 의미

우리는 어떤 색상을 말하면 그 색상마다의 느낌을 떠올린다. 예를 들어 ‘빨강’이면 ‘열정, 강렬, 위험, 사과, 피’, ‘분홍’이면 ‘사랑, 설렘, 하트’, ‘노랑’은 ‘질투, 미움, 명랑, 개나리, 바나나’, ‘녹색’은 ‘자연, 균형, 안전, 초목, 수박’, ‘파랑’은 ‘신중함, 냉정, 추위, 바다, 하늘’ 등을 보편적으로 말 할 수 있다. 이처럼 색은 인간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며, 구체적인 대상을 취하고 있지 않아도 그 자체로 분위기나 느낌을 전달한다. 또, 일상생활에서의 색채에 대한 경험은 정서적으로 개인의 생활, 문화,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색은 곧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다. 화가는 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개념과 사상, 상징성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는 자신의 침실을 그린 「아들의 침실」 【도판 4】에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방이 여기에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방이다. 그 주관적인 색은 내가 경험한 방에 부여한 것이다.’⁶⁾ 이렇게 감정의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느끼는 바에 따라 강한 색채와 형태를 과장해서 열정과 외로움, 불안함을 표현하였다 볼 수 있다.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표현되어지는 색채는 가장 강하게 다가온다. 또, 반대로 무채색은 감정이 배제된 극단의 색으로 표현된다.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의 「게르니카」 【도판 5】를 보면 흰색, 검정, 회색의 무채색들로만 표현되었다. 이는 당시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인 전쟁의 비극성과 절망감, 사람들의 슬픔, 상처를 표현하기 위해 감정이 드러나는 색조를 배제한 단색조로 삭막하고, 두렵고, 무서운 전쟁을 더욱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무채색은 감정

6) 줄리언 벨, 원형준 옮김, 『회화란 무엇인가』, 한길아트, 2002, p. 162.

을 배제시키고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 많이 쓰인다.

본인의 작품에서 주조를 이루는 회색은 삭막함과 무관심이란 느낌을 상징하며 【작품 1, 2, 3】에서 생동감 있고, 활기찬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적막감을 보여주려 사용한 것이다.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32~)는 “내게 회색은 무심, 발언하지 않으려는 의도, 무정견, 무정형 등을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 그러한 그림은 (...) 허구로서의 회색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균일한 색면으로서의 회색이 뒤섞이는 장이다.”⁷⁾ 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막스 뤼셔(Max Luscher)⁸⁾의 색채검사법에서 회색은 “주체도 객체도 아니며, 내면도 외면도 아니고, 긴장도 이완도 아니고, ...회색은 베를린의 장벽이요, 철의 장막이다.” 회색을 처음 위치에 놓는 사람은 벽 속에 살기를 원하며 혼자 떠나있기를 원한다. 회색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따분함을 표출하고, 고립되어 있기보다 생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⁹⁾ 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회색은 획일적으로 보이고 무관심하게 보이는 인간관계를 보여주기에 걸맞은 색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인은 감정을 숨기고 절제된 차가움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하는 현대인들의 감정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7) 월간 PUBLIC ART, 2월호, 2008, p. 90.

8) 1923년 스위스 바젤에서 출생한 막스 뤼셔 박사는 16세에 조절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그 분야의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색상 진단법’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952년 독일의 악셀 슈프링어(Axel Springer) 그룹(출판사)이 창간한 이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바 있으며 여전히 독일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신문 빌트(Bild). ‘빌트’지는 컬러 인쇄를 많이 사용하고 선정적인 기사와 폭로성 기사를 위주로 하는 독일의 대표적 가판신문이다.

9) 파피 비렌, 김진한 옮김, 『색채의 영향』, 시공사, 1996, p.180.

3) 거울의 특성

거울이란 사전적 의미로 빛의 반사를 이용해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이는 물건,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을 단장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 하며 자신에게 다짐을 하거나 반성하는 기회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자신의 내면을 생각해보곤 한다. 이러한 거울의 특성은 작품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그 예로 거울을 소재로 사용한 대표적인 작품인 얀 반 아이크(Jan van Eyck, 1395~1441)의 「아르놀피니의 결혼」【도판 6】와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Rodríguez de Silva y Velázquez, 1599~1660)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도판 7】를 예로 들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아르놀피니의 결혼」【도판 6】는 네덜란드 브뤼게에 거주하는 대 부호인 아르놀피니 부부의 약혼식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귀족은 아니지만 상업가로 성공한 자신을 과시하고자 호화롭고 화려한 옷과 실내 장식품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화려한 실내 장식품 가운데 볼록거울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또, 작가가 얼마나 정교하게 작품을 제작하였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고, 그림 속 거울을 보면 작가가 거울이라는 매체에 매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거울을 이용하여 화면에 그릴 수 없는 그림 속에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거울 속에는 그림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약혼식 서약 장면과 약혼자들의 뒷모습, 창문, 다른 방의 구조까지 보이고, 결혼식의 증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와 작가 자신을 그려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한 면으로 볼 수 없는 반대쪽의 모습까지 거울의 반사효과를 이용하여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곳에

존재하는 이면의 공간을 표현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거울을 사용한 또 다른 작품 「거울을 보는 비너스」【도판 7】를 보면 거울이 비너스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 하지만 섬세하고 완벽한 모습의 몸과는 다르게 거울 속의 얼굴은 몸과 대조를 이룬다. 이것은 작가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거울의 효과에 관심을 가졌고, 화면 속 허구의 모습까지 보여주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너스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 그런 비너스의 얼굴을 거울을 이용하여 아름다움과 상반되게 알아볼 수 없도록 흐릿하게 표현하였다는 것은 실제 현실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상의 이미지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만 진실과 허상, 눈에 보이지 않는 타 존재의 의미도 보여주고, 반성, 자아 성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는 거울의 성질을 이용하고자 본인은 거울을 작품에 도입시켰다. 관람자가 그림 속에 부착된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그림이 보여주는 공간 속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림 속 타인들과의 관계에 동참하도록 하여 그림과 관람자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로써 사용하였다.

거울 위에 투명 시트지를 붙여 작업한 【작품 6, 7】에서는 일반적인 카페의 풍경이 보이며, 보는 이의 모습이 그 위에 비친다. 카페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이들의 풍경이다. 한 공간에 있지만 그 모습조차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을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보편화되어버린 일상적 풍경에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보도록 의도한 것이다. 또한 그런 풍경 속에서 【작품 7】의 상황이 생긴다면 한번쯤 돌아보지 않을지 자신은 어떨 때 주위에 시선을 보내게 되는지 거울에 비춰진 스스로를 보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 작품분석

【작품 1, 2, 3】 「타인」

우리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 속에서 타인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사람이 집단을 만들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의 소통으로 유대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인간은 이성, 사랑, 자비로움, 동정, 책임감, 관심과 같은 덕을 발전시킬 경우에만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고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존재의 확실성 즉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¹⁰⁾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느끼고, 말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삭막함, 무관심, 획일화, 비인간화가 떠오른다. 그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개인주의 속에서 타인과의 단절로 인해 상호주체성을 이루지 못하고 존재감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작품 1, 2, 3】은 획일적이며 삭막한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장소 중 하나인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소재로 택하여 작업한 것이다. 그 곳에서 우리는 자기 일에 바빠서 옆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이 마치 길가의 가로수인 것처럼 무심히 지나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사불란하게 신호에 맞춰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모습은 마치 기계로 찍어내어 복제된 똑같은 모습으로 획일화된 사회의 단면이라 생각하였다.

우리 사회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집단 속 불특정다수가 되어 버린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경쟁하고 이겨야하는

10) 박찬국, 『에리히 프롬과의 대화』, 철학과 현실사, 2001, p.170

사회 속에서 자신 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감춰왔던 진심을 감추고, 타인에 대한 책임도 익명성 속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캔버스 밖으로 잘라 불안정하게 보이도록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숨기고 있는 우리들의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려 하였다.

그림의 전체적인 색상인 회색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현대인의 삭막함과 무미건조함, 일률적인 모습을 대변하기에 알맞은 색이라 생각하였기에 선택하였다. 또, 전체 회색톤 중 한사람의 부분만을 실루엣으로 도려내 색상을 주어 일상의 거리를 또다시 재구성하였다. 그것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무관심, 삭막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주고,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고 그 속에 나 또한 존재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실루엣 안의 표현방법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의 풍경을 찍은 이미지를 거울에 전사시켜 그것을 다시 거리로 들고 나와 전사시킨 이미지위에 또다시 거리풍경이 중첩되도록 찍은 것이다.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 볼 수 있듯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1】 타인 I , 130.3×162.2cm, oil on canvas, 2007



【작품 2】 타인Ⅱ, 130.3×162.2cm, oil on canvas, 2007



【작품 3】 타인Ⅲ, 97×130.3cm, oil on canvas, 2007

【작품 4, 5】 「question」

우리는 생활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가 점점 없어진다. 하루를 보내며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사람이지만 각박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챙기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곳에서 타인과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를 보며 위안을 삼기도 하며, 관심을 갖자는 의도에서 표현하였다.

거리의 풍경 속 군중의 모습을 실루엣으로 잘라내어 그 안에 사람들의 이미지를 중첩시키고 다시 실루엣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게 하였다. 여기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중첩시킨 것은 우리들의 관계도 이어져 있음을 보이하고자 함이다. 또, 중첩되어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무표정하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길을 걷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표정이 무표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표정들을 살려 관객들이 보며 스스로는 어떤 표정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표현하였다. 실루엣 안의 이미지 표현방법은 【작품 1, 2, 3】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리의 풍경을 전사시킨 거울을 다시 거리로 들고나가 전사시킨 이미지와 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 중첩되게 찍은 것이다.



【작품 4】 question, 72.7×60.5cm, oil on canvas, 2006



【작품 5】 question, 72.7×60.5cm, oil on canvas, 2006

【작품 6, 7】 「circumstance II」

사람들은 만남의 장소로 차도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약간의 여유를 느끼며 책을 보고, 사업상의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를 이용한다. 어떠한 목적에서든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고, 그 속에서 또 관계가 형성된다.

우리는 카페로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둘러보며 빈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시작하기 전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은 어떤 차를 마시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며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자신의 할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잠깐의 시선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며 공간속의 소외를 형성해 낸다.

【작품 6】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소외감을 안고 있는 듯한 한 남자의 시선을 시작으로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 보면 잔을 버리러 가는 사람이 보인다. 그 뒤편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상상하며 【작품 7】을 보면 어떤 화난 여자가 남자를 향하여 의자를 던지려고 하고 있다. 만약 【작품 7】의 풍경처럼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라면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공유하는 공간임을 알게 되지 않을까하는 상상에서 시작된 작업이다.

【작품 6, 7】에서 왼쪽에 위치한 남자는 타인과 소통의 단절을 나타내는 의미로 검정색 실루엣으로 무게감을 주었다. 이 남자를 보며 관람객이 자신은 어떤 생각으로 카페라는 공간에 있었는지, 또 주위는 둘러보는지, 만약 내가 저 공간에 있다면 어떠했을지 생각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 【작품 7】에서 의자를 들고 있는 여자의 행동과 실루엣 속의 이미지들은 일상에서 타인과의 관계형성 속에 생겨나는 불편한 시선과 그런 시선의 중압감을 말한다. 실

루엣 속의 이미지들은 사람들의 무표정한 시선과 모습들을 편집하여 이미지들을 중첩시켜 표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미지는 카페 밖에 보이는 사람들의 이미지와 중첩시켜 카페 안과 밖의 두 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으로 생각되지만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보는 시선들을 통해 각자의 공간 속에서 느껴지는 무관심에 관하여 생각해보도록 표현하였다.

두 작품은 거울의 비춰지는 성질을 이용하고자 작품 전체를 투명 시트지에 출력하고, 그림을 보고 있는 자신을 보며 자신과 그림사이의 소통 관계,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함이다.



【작품 6, 7】 circumstance II, 180×120cm, mixed media, 2007

【작품 8, 9】 「question II」

언어란 근원적으로 타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때 언어란 구어(口語)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르트르는 타자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내가 생산해내는 모든 기호들을 다 언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하이데거에게서 빌어온 “나는 내가 말하는 것으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모든 행위를 언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¹¹⁾

우리는 항상 서로를 경험하고 있지만 서로간의 대화가 있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타인과의 교류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특정한 공간이 아니면 타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 졌다. 과거에는 정류장, 서점, 시장 외에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옆 사람에게 말을 걸며 짧지만 대화형식의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필요한 말만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약속을 잡고 카페라는 공간이나 특정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 작업은 사람들의 실루엣에만 【작품 6, 7】 에서와 같이 거울에 투명 시트지에 출력한 이미지를 붙여 관람객이 비춰지도록 하고,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비춰지지 않게 가리고 라인으로 표현하였다. 그것은 대화하는 곳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강조되지 않게 어떤 공간이라는 것만 표현하기 위함이다.

11) 변광배, 앞의 책, 살림출판사, 2004, p.55



【작품 8】 question II, 86×56cm, mixed media, 2007



【작품 9】 question II, 61×73cm, mixed media, 2007

【작품 10】 「keeping」

거울은 실제 이미지를 반사시켜 보여주고, 내면의 모습 또한 보여주는 자아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이런 성질을 바탕으로 세 종류의 문의 이미지를 붙인 거울을 바닥 부분에 붙이고, 그 위에 밀러아크릴을 이용하여 박스를 만들었다. 한쪽면만 비춰지는 거울과 달리 투명하면서도 양쪽면이 다 비치는 밀러아크릴로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박스를 보는 관람자의 얼굴도 비춰지고 거울에 있는 이미지 또한 비춰져 이미지가 중첩되어 보여진다. 또 마주보고 있는 거울 사이에 생기는 공간으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으로 빨려드는 느낌 든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공간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속마음은 어떤지, 거울에 보이는 문의 이미지를 보며 마음에 문을 열고 나와 타인과의 만남을 위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표현하였다.



【작품 10】 keeping, 21×29.7cm, mixed media, 2007

Ⅲ. 결 론

니체는 ‘인간은 병든 동물이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불만을 느끼거나 권태를 느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강렬한 물음 속에서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실상, 우리는 반복적 일상 속에서 잊혀 가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다시금 느끼며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이나 사물들을 당연히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주변에 무관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나의 삶에 있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위치에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사물을 살펴 나와의 연관성을 찾고, ‘타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지만 그것은 나와 일정한 연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미술행위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인 삶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나타내고, 이를 통하여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또, 예술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변화에 반응하며 그 모습을 대변한다. 이를 위해 작가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상상력으로 사회를 새롭게 읽고자 한다. 본인은 서로에 무관심한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공생하는 삶으로서의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존재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감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였다.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부터 시작하였으나 동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상황을 관찰을 통해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좀 더 사회적인 문맥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한 ‘타인과의 단절로 인해 소외된 현대인의 정체성의 상실’을 공감하고자 하였다.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작품 주제와 형식, 조형의식과 논리전계의 미진함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된 주제와 애매모호한 이미지의 나열로 채워진 화면을 통해 미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다.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서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속에 타인과의 관계 단절을 이루는 이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더 치밀하고 집약된 주제와 구성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이번 논문의 대상인 작품들에서 설명적이고 실험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은 사실주의적인 표현으로 현실감 있게 표현하면서도 현실에 상상적 비전을 부여하는 회화작품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꾸미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작품의 내용과 조형적 구성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나타낸다면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진행될 작품을 통해서 본인도 현실에서 찾고자 하는 주제를 설명하려거나 어떠한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닌 보이는 사실 자체로 짜임새 있게 연출, 구성하여 나타낼 것이다.

본 논문은 앞으로의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작은 기반이 되는 경험이 되었으며, 보다 뚜렷해진 조형관으로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참 고 문 헌

- 변광배, 『장 폴 사르트르 시선과 타자』, 살림출판사, 2004
- 변광배, 사르트르, 『존재와 무』, 살림출판사, 2005
-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 줄리언 벨, 원형준 옮, 『회화란 무엇인가』, 한길아트, 2002
- 월간 PUBLIC ART, 2월호, 2008
- 과피 비렌, 김진한 옮, 『색채의 영향』, 시공사, 1996
- 강태희, 『현대미술의 또 다른 지평』, 시공사, 2000
- 박찬국, 『에리히 프롬과의 대화』, 철학과 현실사, 2001
- EH 콰브리치, 백승길, 이동승 옮, 『서양미술사』, 예경, 1997
- 롤프 귄터 레너, 정재곤 옮, 『에드워드 호퍼』, 마로니에 북스, 2005
- 롤랑바르트, 조광희 옮, 『카메라 루시다』, 열화당 미술설서 섭, 1986
- 이영준, 『사진, 이상한 예술』, 눈빛, 1999
- 김석원, 『사진, 미술을 초대하다』, 아트북스, 2007
- 니코스 스탠고스, 성완경, 김인례 옮, 『현대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1994
- 리차드 리키, 로저 레윈 공저, 김광역 옮, 『오리진』, 주우, 1983
- 국립현대미술관, 『프로망제』, 미사랑, 2005

ABSTRACT

Research on Expression of the Sense of Alienation Through the Daily Routine of Modern Man

- Centering around My Work -

Kim, Hye Jin

Dept. of Western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the research on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s work themed “Relationship with Others” presented in the 2007 Graduate Exhibition.

The 21st century in which we live is called the new media or digital era. Our lives today are ruled by mass media such as digital, cyber and internet. We use navigation to find our way and the internet to make our purchases. We live an era in which, as we walk, we see real time news and advertisements through huge signs installed in various places in the city and talk on our mobile phones with someone who is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We do not need to be physically present to choose the product we are to purchase as we can do it online. We can buy and go anywhere with a single card. Such society

established by vanguard technology makes our lives convenient. However, in a way, forms a society of human alienation and inhumanity. The system of past formed structurally through farms or factories is now mechanized allowing for the management by only a few people. With the development of online games that are enjoyed alone, entertainment has become lacking in human interaction, and the distinction between reality and virtual has become confusing and thus severing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The modern man who lives a society where the original is gone and exchange is also chaotic, resolves many issues through the virtual space in the internet and computer rather than actual meetings and thus loses the sense of existence and identity formed in the interaction and interest between people becoming anxious.

The people living their dry routines were the subject of my works upon which I reflected the emotions and experiences as another who lives in such modern world. I have molded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with a focus on one`s own sense of existence.

As I began my work, I have chosen as subject locations that best show relationships of modern man such as zebra-crossings and cafes. The zebra crossing is a space where many people collectively pass each other, but when people walk solely for the purpose of crossing the street one can see the phase of the modern social man who have

become individualistic and uninterested in others. I aimed that exp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by reiteration this scene into an image of a person or image of several people. The other subject is the café, where numerous people are gathered, but is it a place for individual relationships. This space where people form common ground of sympathy but are too busy with their own businesses to even look around is the space wher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re formed and maintained. This space was captured in photo and reconstructed or pasted on a mirror so that, as the appreciator sees himself in the work, communication between the appreciator and the artwork occurs.

Art is influenced by social background. And artists interpret subjectively the socially oppressive reality task, explore for the results and, in the process of solving this problem, achieve the self of the current status. Reflecting on the importance of others in the current society in which I myself live, I discuss that directly and indirectly people are providing a sense of existence to each others' lives.